

# [성주간] 성지주일 수난복음 가해

마태 26, 14 - 27, 66



마 태 오 가 전 한 우 리 주 예 수 그리스도 의 수 난 기 입 니 다.



그 때 에 열 두 제 자 가 운 데 하 나 로 유 다 이스 카 리 옷 이 라 는



자 가 수 석 사 제 들 에 게 가 서 물 었 다. "내 가 예 수 님 을 여 러



분 에 게 넘 겨 주 면 나 에 게 무 엇 을 주 실 작 정 입 니 까?"



수 석 사 제 들 은 은 돈 서 른 님 을 내 주 었 다. 그 때 부 터 유 다 는



예 수 님 을 넘 길 적 당 한 기 회 를 노 렸 다. 무 교 절 첫 날 에 제 자



들 이 예 수 님 께 다 가 와 물 었 다. "스 승 님 께 서 잡 수 실 파 스카



음 식 을 어 디 에 차 리 면 좋 겠 습 니 까?" 예 수 님 께 서 이 르 셧 다.



"도 성 안 으 로 아 무 개 를 찾 아 가, '선 생 님 께 서 '나 의 때 가



은 자 기 에 관 하 여 성 경 에 기 록 된 대 로 떠 나 간 다. 그 러

나 불 행 하 여 라. 사 람 의 아 들 을 팔 아 넘 기 는 그 사 람!

그 사 람 은 차 라 리 태 어 나 지 않 았 더 라 면 자 신 에 게 더 좋  
(해설자)

았 을 것 이 다." 예 수 님 을 팔 아 넘 길 유 다 가 물 었 다.

(다른사람) (해설자)  
"스 승 님, 저 는 아 니 겠 지 요?" 그 러 자 예 수 님 께 서 대 답 하 셸 다.

(그리스도) (해설자)  
"네 가 그 령 게 말 하 였 다." 제 자 들 이 음 식 을 먹 고 있 을 때 에

예 수 님 께 서 빵 을 들 고 찬 미 를 드 리 신 다 음, 그 것 을 떼 어  
(그리스도)

제 자 들 에 게 주 시 며 말 씀 하 셸 다. "받 아 먹 어 라. 이 는 내  
(해설자)

몸 이 다." 또 잔 을 들 어 감 사 를 드 리 신 다 음 제 자 들 에 게  
(그리스도)

주 시 며 말 씀 하 셸 다. "모 두 이 잔 을 마 셔 라. 이 는 죄 를 용 서 해

주 려 고 많 은 사 람 을 위 하 여 흘 리 는 내 계 약 의 피 다.

내 가 너 희 에 게 말 한 다. 내 아 버 지 의 나 라 에 서 너 희 와

함 께 새 포 도 주 를 마 실 그 날 까 지, 이 제 부 터 포 도 나 무  
(해설자)

열 매 로 빛 은 것 을 다 시 는 마 시 지 않 겠 다." 그 들 은 찬 미 가 를

부 르 고 나 서 올 리 브 산 으 로 갔 다. 그 때 에 예 수 님 께 서  
(그리스도)

제 자 들 에 게 말 씀 하 셴 다. "오 늘 밤 에 너 희 는 모 두 나 에 게

서 떨 어 져 나 갈 것 이 다. 성 경 에 '내 가 목 자 를 치 리 니

양 떼 가 흘 어 지 리 라.' 고 기 록 되 어 있 기 때 문 이 다. 그 러 나

나 는 되 살 아 나 서 너 희 보 다 먼 저 갈 킬 래 아 로 갈 것 이 다."  
(해설자) (다른사람)

베 드로 가 예 수 님 께 말 하 였 다. "모 두 스 승 님 에 게 서 떨 어



저 나 갈 지 라 도, 저 는 결 코 떨 어 져 나 가 지 않 을 것 입 니 다."



예 수 님 께 서 베드로 에 게 말 씀 하 셴 다. "내 가 너 에 게 진 실 로



말 한 다. 오 늘 밤 닭 이 울 기 전 에 너 는 세 번 이 나 나 를 모



른 다 고 할 것 이 다." 베드로 가 다 시 예 수 님 께 말 하 였 다.



"스승 님 과 함 께 죽 는 한 이 있 더 라 도, 저 는 스승 님 을 모 른



다 고 하 지 않 겠 습 니 다." 다 른 제 자 들 도 모 두 그 령 게 말 하



였 다. 그 때 에 예 수 님 께 서 제 자 들 과 함 께 겿 세 마 니 라



는 곳 으 로 가 셴 다. 그 리 고 제 자 들 에 게 말 씀 하 셴 다.



"내 가 저 기 가 서 기 도 하 는 동 안 여 기 에 앓 아 있 어 라."



그 런 다 음, 베드로 와 제 베 대 오 의 두 아 들 을 데 리 고 가 셴 다.



그 분 께 서 는 근 심 과 번 민 에 휩 싸 이 기 시 작 하 셴 다. 그 때 에  
(그리스도)



그 들 에 게 말 씀 하 셴 다. "내 마 음 이 너 무 괴 로 워 죽 을



지 경 이 다. 너 희 는 여 기 에 남 아 서 나 와 함 께 깨 어 있 어 라."

(해설자)



예 수 님 께 서 는 앞 으 로 조 금 나 아 가 얼 굴 을 땅 에 대 고 기

(그리스도)



도 하 시 며 이 렇 게 말 씀 하 셴 다. "아 버 지, 하 실 수 만



있 으 시 면 이 잔 이 저 를 비 켜 가 게 해 주 십 시 오. 그 러 나 제



가 원 하 는 대 로 하 지 마 시 고 아 버 지 께 서 원 하 시 는 대 로

(해설자)



하 십 시 오." 예 수 님 께 서 제 자 들 에 게 돌 아 와 보 시 니 그



들 은 자 고 있 었 다. 그 래 서 베 트로 에 게 말 씀 하 셴 다.

(그리스도)



"이 렇 게 너 희 는 나 와 함 께 한 시 간 도 깨 어 있 을 수 없 더 란

말 이 냐? 유 혹 에 빠 지 지 않 도 록 깨 어 기 도 하 여 라. 마 음

(해설자)

은 간 절 하 나 몸 이 따 르 지 못 한 다." 예 수 님 께 서 다 시

(그리스도)

두 번 째 로 가 서 기 도 하 셧 다. "아 버 지, 이 잔 이 비 켜 갈 수

없 는 것 이 라 서 제 가 마 셔 야 한 다 면, 아 버 지 의 뜻 이 이 루

(해설자)

어 지 게 하 십 시 오." 그 리 고 다 시 와 보 시 니 그 들 은 여 전 히

눈 이 무 겁 게 감 겨 자 고 있 었 다. 예 수 님 께 서 는 그 들 을 그 대 로

두 시 고 다 시 가 시 어 세 번 째 같 은 말 씀 으 로 기 도 하 셧 다.

(그리스도)

그 리 고 제 자 들 에 게 돌 아 와 말 씀 하 셧 다. "아 직 도 자 고 있

느 냐? 아 직 도 쉬 고 있 느 냐? 이 제 때 가 가 까 웠 다. 사 람

의 아 들 은 죄 인 들 의 손 에 넘 어 간 다. 일 어 나 가 자. 보 라,

(해설자)



나를 팔아 넘길 자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



하고 계실 때에 바로 열두 제자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그와 함께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보낸 큰 무리도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다. 그분을 팔아 넘길 자는,

(다른사람)



"내가 입 맞추는 이가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으시오."

(해설자)



하고 그들에게 미리 신호를 일러 두었다. 그는 곧 바로

(다른사람)



예수님께 다가가 말하였다. "스승님, 안녕하십니까?"

(해설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었다. 예수님께서 말씀

(그리스도)

(해설자)



하셨다. "친구야, 네가 하러 온 일을 하여라." 그 때에



무리가 다가와 예수님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았다.





그 러 자 예 수 님 과 함 께 있 던 이 들 가 운 데 한 사 람 이 칼 을



빼 어 들 고, 대 사 제 의 종 을 쳐 서 그 의 귀 를 잘 라 버 렸 다.

(그리스도)



그 때 에 예 수 님 께 서 그 에 게 이 르 셴 다. "칼 을 칼 집 에



도 로 쫓 아 라. 칼 을 잡 는 자 는 모 두 칼 로 망 한 다. 너 는 내



가 내 아 버 지 께 청 할 수 없 다 고 생 각 하 느 냐? 청 하 기 만 하



면 당 장 에 열 두 군 단 이 넘 는 천 사 들 을 내 곁 에 세 워 주 실



것 이 다. 그 러 면 일 이 이 렇 게 되 어 야 한 다 는 성 경 말 씀 이

(해설자)



어 땡 게 이 루 어 지 겠 느 냐? 그 때 에 예 수 님 께 서 는 그 무

(그리스도)



리 에 게 도 이 렇 게 이 르 셴 다. 너 희 는 강 도 라 도 잡 을 듯 이



칼 과 몽 등 이 를 들 고 나 를 잡 으 러 나 왔 단 말 이 냐? 내 가 날

마 다 성 전 에 앓 아 가 르 쳤 지 만 너 희 는 나 를 붙 잡 지 않 았 다.

예 언 자 들 이 기 록 한 성 경 말 씀 이 이 루 어 지 려 고 이 모 든  
(해설자)

일 이 일 어 난 것 이 다." 그 때 에 제 자 들 은 모 두 예 수 님 을

버 리 고 달 아 났 다. 무 리 는 예 수 님 을 붙 잡 아 카 야 파

대 사 제 에 게 끌 고 갔 다. 그 곳 에 는 율 법 학 자 들 과 원 로 들

이 모 여 있 었 다. 베 드로 는 멀 짝 이 떨 어 져 예 수 님 을 뒤

따 라 대 사 제 의 저택 까 지 가 서, 결 말 을 보 려 고 안 뜰 로

들 어 가 서 종 들 과 함 께 앓 았 다. 수 석 사 제 들 과 온 최 고 의 회

는 예 수 님 을 사 형 에 처 하 려 고 그 분 에 대 한 거 짓 증 언 을

찾 았 다. 거 짓 증 인 들 이 많 이 나 섰 지 만 하 나 도 찾 아 내



지 못 하 였 다. 마 침 내 두 사 람 이 나 서 서 말 하 였 다.

(다른사람)



"이 자 가 '나 는 하 느 님 의 성 전 을 허 물 고 사 흘 안 에 다 시

(해설자)



세 을 수 있 다.' 고 말 하 였 습 니 다." 대 사 제 가 일 어 나 예 수 님

(다른사람)



께 물 었 다. "당 신 은 아 무 런 대 답 도 하 지 않 소? 이 자 들 이

(해설자)



당 신 에 게 불 리 한 증 언 을 하 는 데 어 찌 된 일 이 오? 그 러 나



예 수 님 께 서 는 입 을 다 물 고 게 셧 다. 대 사 제 가 말 하 였 다.

(다른사람)



"내 가 명 령 하 오. '살 아 계 신 하 느 님 앞 에 서 맹 세 를 하 고

(해설자)



당 신 이 하 느 님 의 아 들 메 시 아 인 지 밝 히 시 오." 예 수 님 께

(그리스도)



서 대 사 제 에 게 말 씀 하 셧 다. "네 가 그 령 게 말 하 였 다.



나 는 너 희 에 게 말 한 다. 이 제 부 터 '너 희 는 사 람 의 아 들



이 전 능 하 신 분 의 오 른 쪽 에 앉 아 있 는 것 과 하 늘 의 구 름

(해설자)



을 타 고 오 는 것 을 볼 것 이 다." 그 때 에 대 사 제 가 자 기 겔 옷 을 찢

(다른사람)



고 이 렇 게 말 하 였 다. "이 자 가 하 느 님 을 모 독 하 였 습 니 다.



이 제 우 리 에 게 무 슌 증 인 이 더 필 요 합 니 까? 방 금 여 러 분



은 하 느 님 을 모 독 하 는 말 을 들 었 습 니 다. 여 러 분 의 의 건

(해설자)

(다른사람)



은 어 땡 습 니 까?" 그 들 이 대 답 하 였 다. "그 자 는 죽 을 죄

(해설자)



를 지 었 습 니 다." 그 때 에 그 들 은 예 수 님 의 얼 굴 에 침 을



벨 고 그 분 을 주 먹 으 로 찼 다. 더 러 는 손 찌 검 을 하 면 서 말 하

(다른사람)



였 다. "메 시 아 야, 알 아 맞 혀 보 아 라. 너 를 친 사 람 이 누 구 냐?"

(해설자)



베 드로 는 안 뜰 바 깥 쪽 에 앉 아 있 었 는 데 하 녀 하 나 가 그 에



게 다 가 와 말 하 였 다. "당 신 도 저 갈 릴 래 아 사 람 예 수 와



함 께 있 었 지 요?" 베 드로 는 모 든 사 람 앞 에 서 부 인 하 였 다.



"나 는 당 신 이 무 슌 말 을 하 는 지 모 르 겠 소." 베 드로 가 대 문 께



로 나 가 자 다 른 하 녀 가 그 를 보 고 거 기 에 있 는 이 들 에 게



말 하 였 다. "이 이 는 나 자 렛 사 람 예 수 와 함 께 있 었 어 요."



베 드로 는 맹 세 까 지 하 면 서 다 시 부 인 하 였 다. "나 는 그 사 람



을 알 지 못 하 요." 조 금 뒤 에 거 기 서 있 던 이 들 이 베 드로 에 게



다 가 와 말 하 였 다. "당 신 도 그 들 과 한 패 임 이 틀 림 없 소.



당 신 의 말 씨 를 들 으 니 분 명 하 요." 그 때 에 베 드로 는 거 짓



이 면 천 벌 을 받 겠 다 고 맹 세 하 기 시 작 하 며 말 하 였 다.

(다른사람)

(해설자)



"나 는 그 사 람 을 알 지 못 하 오." 그 러 자 곧 닭 이 울 었 다.



베 드로 는 "닭 이 울 기 전 에 너 는 세 번 이 나 나 를 모 른 다 고



할 것 이 다." 하 신 예 수 님 의 말 씀 이 생 각 나 서, 밖 으 로



나 가 슬 피 울 었 다. 아 침 이 되 자 모 든 수 석 사 제 들 과 백 성 의



원 로 들 은 예 수 님 을 사 형 에 처 하 기 로 결 의 한 끝 에,



그 를 결 박 하 여 끌 고 가 서 빌 라 도 총 독 에 게 넘 겼 다.



그 때 에 예 수 님 을 팔 아 넘 긴 유 다 는 그 분 께 서 사 형 선



고 를 받 으 신 것 을 보 고 뉘 우 치 고 서 는, 그 은 돈 서 른 님



을 수 석 사 제 들 과 원 로 들 에 게 돌 려 주 면 서 말 하 었 다.

(다른사람)



"죄 없 는 분 을 팔 아 넘 겨 죽 게 만 들 었 으 니 나 는 죄 를 지 었 소."

(해설자)

(다른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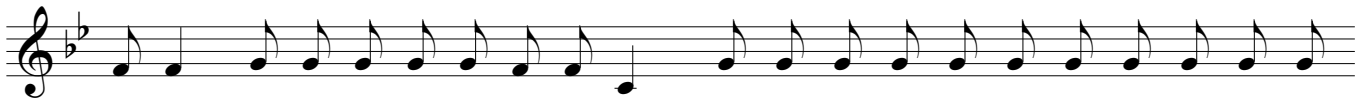


그 들 은 말 하 였 다. "우 리 와 무 슌 상 관 이 나? 그 것 은

(해설자)



네 일 이 다." 유 다 는 그 은 돈 을 성 전 안 에 다 내 던 지 고 물 러



가 서 목 을 매 달 아 죽 었 다. 수 석 사 제 들 은 그 은 돈 을 거

(다른사람)



두 면 서 말 하 였 다. "이 것 은 피 값 이 니 성 전 금 고 에 넣 어

(해설자)



서 는 안 되 겠 소." 그 들 은 의 논 한 끝 에 그 돈 으 로 웅 기 장



이 발 을 사 서 이 방 인 들 의 묘 지 로 쓰 기 로 하 였 다. 그 래



서 그 발 은 오 늘 날 까 지 '피 발' 이 라 고 불 린 다. 그 리 하 여



예 레 미 야 예 언 자 를 통 하 여 하 신 말 씀 이 이 루 어 졌 다.



"그 들 은 은 돈 서 른 님, 값 어 치 가 매 겨 진 이 의 몸 값, 이 스라



엘 자 손 들 이 값 어 치 를 매 긴 사 람 의 몸 값 을 받 아 주 님 께



서 나 에 게 분 부 하 신 대 로 응 기 장 이 밭 값 으 로 내 놓 았 다."

(다른사람)



예 수 님 께 서 총 독 앞 에 서 셧 다. 총 독 이 물 었 다. "당 신 이

(해설자)



유 다 인 들 의 임 금 이 오?" 예 수 님 께 서 대 답 하 셧 다.

(그리스도)

(해설자)



"네 가 그 령 게 말 하 고 있 다." 그 러 나 수 석 사 제 들 과 원 로 들 이



당 신 을 고 소 하 는 말 에 는 아 무 대 답 도 하 지 않 으 셧 다.

(다른사람)



그 때 에 빌 라 도 가 예 수 님 께 물 었 다. "저 들 이 갖 가 지 로

(해설자)



당 신 에 게 불 리 한 증 언 을 하 는 데 들 리 지 않 소?" 그 러 나 예



수 님 께 서 는 어 떠 한 고 소 의 말 에 도 대 답 을 하 지 않 으 셧 다.



그 래 서 총 독 은 매 우 이 상 하 게 여 겼 다. 축 제 때 마 다 군 중



이 원 하 는 죄 수 하 나 를 총 독 이 풀 어 주 는 관 례 가 있 었 다.





마침 그 때 에 예수 바라 빠 라는 이름 난 죄 수가 있 었 다.

(다른사람)



사 람 들 이 모 여 들 자 빌 라 도 가 그 들 에 게 물 었 다. "내 가



누 구 를 풀 어 주 기 를 원 하 오? 예수 바라 빠 요 아 니 면

(해설자)



메 시 아 라 고 하 는 예 수 요?" 빌 라 도 는 사 람 들 이 예 수 님



을 시 기 하 여 자 기 에 게 넘 겼 음 을 알 고 있 었 던 것 이 다.



빌 라 도 가 재 판 석 에 앉 아 있 는 데 그 의 아 내 가 사 람 을 보

(다른사람)



내 어 말 하 었 다. "당 신 은 그 의 인 의 일 에 관 여 하 지 마 세 요.



지 난 밤 꿈 에 내 가 그 사 람 때 문 에 큰 괴 로 움 을 당 했 어 요."

(해설자)



그 동 안 수 석 사 제 들 과 원 로 들 은 군 중 을 구 슬 려 바 라 빠



를 풀 어 주 도 록 요 청 하 고 예 수 님 은 없 애 버 리 자 고 하 었 다.

(다른사람)



(해설자)



(회중)

(해설자)



(다른사람)



(해설자)

(회중)

(해설자)



(다른사람)



(해설자)

(회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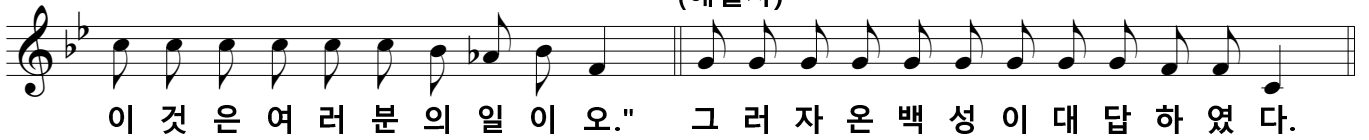
(해설자)



(다른사람)



(해설자)



이것은 여러분의 일이오."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였다.

(다른사람)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질 것이오."

(해설자)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빠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



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그 때에 총독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총독 관저로 데리고



가서 그분들레에 온 부대를 집합시킨 다음, 그분의 옷



을 벗기고 진홍색 외투를 입혔다. 그리고 가시나무로 관



을 엮어 그분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리고



서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며 조롱하였다.

(다른사람)

(해설자)



"유대인들의 임금만 세!" 군사들은 또 예수님께 침을

별 고 갈 대 를 빼 앗 아 그 분 의 머 리 를 때 렸 다. 그 령 게 예 수

님 을 조 롱 하 고 나 서 외 투 를 벗 기 고 그 분 의 겂 옷 을 입 혔 다.

그 리 고 예 수 님 을 십 자 가 에 못 박 으 러 끌 고 나 갔 다. 그 들

은 나 가 다 가 시 몬 이 라는 키 레 네 사 람 을 보 고 강 제 로 예

수 님 의 십 자 가 를 지 게 하 였 다. 이 욱 고 골 고 타 곧 '해 골 터'

라 는 곳 에 이 르 렸 다. 그 들 이 쓸 개 즈 을 섞 은 포 도 주 를 예 수

님 께 마 시 라 고 건 냈 지 만, 그 분 께 서 는 맛 을 보 시 고 서 는

마 시 려 고 하 지 않 으 셸 다. 그 들 은 예 수 님 을 십 자 가 에 못

박 고 나 서 제 비 를 뿜 아 그 분 의 겂 옷 을 나 누 어 가 진 다 음,

거 기 에 앓 아 예 수 님 을 지 켜 다. 그 들 은 또 그 분 의 머 리 위 에

죄 명 을 붙 여 놓 았 다. 거 기 - 에 는 '이 자 는 유 다 인 들 의

임 금 예 수 다' 라 고 쓰 여 있 었 다. 그 때 에 강 도 두 사 람 도

예 수 님 과 함 께 십 자 가 에 못 박 혔 는 데, 하 나 는 오 른 쪽 에

하 나 는 왼 쪽 에 못 박 혔 다. 지 나 가 던 자 들 이 머 리 를 흔 들

어 대 며 예 수 님 을 모 독 하 면 서 이 렇 게 말 하 었 다.

(다른사람)

"성 전 을 허 물 고 사 흘 안 에 다 시 짓 겠 다 는 자 야, 너 자 신 이

나 구 해 보 아 라. 네 가 하 느 님 의 아 들 이 라 면 십 자 가 에

(해설자)

서 내 려 와 보 아 라." 수 석 사 제 들 도 이 런 식 으 로 율 법 학

(다른사람)

자 들 과 원 로 들 과 함 께 조 롱 하 며 말 하 었 다. "다 른 이 들 은

구 원 하 였 으 면 서 자 신 은 구 원 하 지 못 하 는 군. 이 스라 엘

의 임 금 님 이 시 면 지 금 십 자 가 에 서 내 려 와 보 시 지.

그 러 면 우 리 가 믿 을 터 인 데. 하 느 님 을 신 뢰 한 다 고 하 니,

하 느 님 께 서 저 자 가 마 음 에 드 시 면 지 금 구 해 내 보 시 라 지.

(해설자)  
'나 는 하 느 님 의 아 들 이 다.' 하 였 으 니 말 이 야." 예 수 님 과

함 께 십 자 가 에 못 박 힌 강 도 들 도 마 찬 가 지 로 그 분 께 비

아 냇 거 렸 다. 낮 열 두 시 부 터 어 둠 이 온 땅 에 덮 여 오 후

세 시 까 지 계 속 되 었 다. 오 후 세 시 쯤 에 예 수 님 께 서 큰 소

(그리스도)  
리 로 부 르 짓 으 셸 다. "엘 리 엘 리 레 마 사 박 타 니?"

(해설자) (그리스도)  
이 는 "저 의 하 느 님, 저 의 하 느 님, 어 찌 하 여 저 를 버 리 셸

(해설자)  
습 니 까?" 라 는 뜻 이 다. 그 곳 에 서 있 던 자 들 가 운 데 몇 이

(다른사람)  
  
 이 말 씀 을 듣 고 말 하 였 다. "이 자 가 엘 리 야 를 부 르 네."

(해설자)  
  
 그 러 자 그 들 가 운 데 한 사 람 이 곧 달 려 가 서 해 면 을 가 져 와

  
 신 포 도 주 에 듬 뵈 적 신 다 음, 갈 대 에 꽃 아 예 수 님 께 마 시 게

(다른사람)  
  
 하 였 다. 그 러 나 다 른 사 람 들 은 말 하 였 다. "가 만, 엘 리 야 가

(해설자)  
  
 와 서 그 를 구 해 주 나 보 시 다." 예 수 님 께 서 는 다 시 큰 소 리

  
 로 외 치 시 고 나 서 숨 을 거 두 셧 다. [무릎을 꿇고 잠깐 묵상한다.]

  
 그 러 자 성 전 휘 장 이 위 에서 아 래 까 지 두 갈 래 로 찢 어 졌 다.

  
 땅 이 흔 들 리 고 바 위 들 이 갈 라 졌 다. 무 덤 이 열 리 고 잠

  
 자 던 많 은 성 도 들 의 몸 이 되 살 아 났 다. 예 수 님 께 서 다 시

  
 살 아 나 신 다 음, 그 들 은 무 덤 에 서 나 와 거 룩 한 도 성 에 들 어 가

많은 이들에게 나타났 다. 백인 대장과 또 그와 함께 예수

님을 지키던 이들이 지진과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다른사람)  
몹시 두려워 하며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느님의 아

(해설자)  
드님이 셧 다." 거기에는 많은 여자들이 멀리서 지켜 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래아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며

시종들던 이들이 다. 그들 가운데에는 마리아 막달레나,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제베대오 아들들의 어머니

니도 있었다. 저녁 때가 되자 아리마태아 출신의 부유한 사

람으로서 요셉이라는 이가 왔는데,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

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청 하 자, 빌 라 도 가 내 주 라 고 명 령 하 였 다. 요 셉 은 시 신 을

받 아 깨 끗 한 아 마 포 로 감 썬 다 음, 바 위 를 깎 아 만 든 자 기 의

새 무 덤 에 모 시 고 나 서, 무 덤 입 구 에 큰 돌 을 굴 려 막 아 놓 고 갔

다. 거 기 무 덤 맞 은 쪽 에 는 마 리 아 막 달 레 나 와 다 른 마 리 아

가 앓 아 있 었 다. 이 틀 날 곧 준 비 일 다 음 날 에 수 석 사 제

들 과 바 리 사 이 들 이 함 께 빌 라 도 에 게 가 서 말 하 였 다.

(다른사람)

"나 리, 저 사 기 께 이 살 아 있 을 때, '나 는 사 흘 만 에 되 살 아

날 것 이 다.' 하 고 말 한 것 을 저 희 는 기 억 합 니 다. 그 러

니 셋 째 날 까 지 무 덤 을 지 키 도 록 명 령 하 십 시 오. 그 의

제 자 들 이 와 서 시 체 를 훔 쳐 내 고 서 는, '그 분 은 죽 은 이 들

